

## 나주 혁신도시 오염총량제에 발목 잡히나

### 영산강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반력...한전KPS 연수센터 건립 무산 위기



한전KPS의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 종합연수센터 건립 사업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연수센터는 나주혁신도시로 한전KPS 본사가 이전함에 따라 다도댐 다도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나주시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받고 있어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5개 기관들의 지역 내 추가 연수원 건립도 기대되고 있지만 자칫,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묶여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KPS 연수센터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정적 판정을 받아 사업 계획이 반력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나주지역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있고, 다도댐 인근에 다른 휴양시설이 이미 영업 중인 점 등을 들어 연수센터 건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반력됨에 따라

연수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건립 계획을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혁신도시부지에는 이 연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추가 부지가 남아있지 않아 자칫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 향후 타 이전기관의 연수원 건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KPS 측은 '6월말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대전에 연수원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나주시에 공문으로 전달했고, 대전에 연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계약했다.

한전KPS 한 관계자는 "다도댐 인근에 위탁시설도 허가를 내주면서 국책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내부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서울에서 가까운 대전에 연수원을 짓자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수원 건립

예정부지 인근의 산림욕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수원 건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지난 2008년 나주시와 한전KPS는 15만5000㎡ 규모 부지에 연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하는 협약을 맺었다. 한전 KPS는 연수센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650억여원이 투입할 계획이었다. 연수센터 건립 후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연간 1만여명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 하천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당량 이내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할당량을 초과하면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전면 금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 월드스타 속속 도착 광주 배구열기 후끈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2012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장성군단' 이탈리아 선수들이 19일 광주시 북구 문흥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이 벌이는 한판 승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영주체육관에서 펼쳐진다. <관련기사 14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알림

## 호남예술제

### 최고상 작품 발표회

6월 23일(토)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57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람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12, 13면>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亞문화전당 내년 예산도 반토막

문광부 697억원 신청 예정  
2015년 개관도 어려울 듯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2014년에서 2015년 7월로 연기(광주일보 15일자 1면)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문화전당의 공기 내 완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의 절반 정도만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완공과 2015년 7월 개관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중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문화전당 건립비로 697억원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문광부 측은 내년도 소요 예산은 1300억원이지만 지출한도 때문에 697억원을 신청하고 추가 문제사업 재기를 통해 나머지 60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애초 2012년 개관 계획이었지만 옛 도청별관 문제로 2014년으로 2년여 연기됐고, 문광부는 예산 문제로 또 다시 7개월 더 늦추기로해 지역민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처럼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광부가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아시아문화전당 2014년 완공 및 2015년 개관'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광부가 추가 문제사업으로 제기해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강 최고위원은 "현재의 정부 예산 계획으로는 그나마 늦춰진 2014년 완공과 2015년 개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소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도쿄의정서 대체 '광주CDM' 도시환경평가 국제기준 될까

### '리우+20' 회의 강시장 제안 논의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지난해 광주시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도시 CDM(청정개발체제)'해법이 브라질에서 개최중인 '리우+20' 회의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리우+20' 회의는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최초로 '개발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 환경단체들이 참석하여 논의하는 국제환경회의이다.

강우태 광주시장은 UEAMA(도시환경연합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18일(현지시간) 이 회의 특별 세션에 참가해 "선진국, 개도국 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평가 국제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주는 UNEP(유엔환경계획)과 함께 '도시환경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며 "도시탄소배출의 효과적인 절감을 위해 도시CDM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이 제안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UNEP,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와 공동 개최한 '2011 UEA(도시환경협약)광주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였다.

이번에는 이 의제가 광주시 차원을 뛰어넘어 UNEP, UEAMA의 두 국제기구의 의견으로 이번 회의에서 개진된 것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120여개국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광주환경정상회의 개최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김귀근 UEAMA사무총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앞으로는 광주시가 제안한 '도시CDM'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해 하여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UNFCCC는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권적 지위를 갖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CDM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월드뱅크)을 방문, '지표와 기법'개발과 '시범적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해 국제사회에 내년도까지 '지표와 기법'개발을 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1997년 이행방안인 '교토의정서'의 시한이 내년 만료를 앞두고, 구체적인 실천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광주시가 개발할 모델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UNFCCC가 개발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홍행기기자 redplane@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선적용 판매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중형차량 표준 연비 및 용량  
E 200 CDI BlueEFFICIENCY 1,796cc, 1,649kg, 지름71.1, 118km/h, 35.0, CO2 배출량 202g/km • E 220 CDI BlueEFFICIENCY 2,143cc, 1,875kg, 지름71.1, 17.1km/h, 11.0, CO2 배출량 157g/km • E 300 ELEGANCE / AVANTGARDE 3,498cc, 1,775kg, 지름71.1, 9.2km/h, 4.0, CO2 배출량 254g/km • E 350 3,498cc, 1,796kg, 지름71.1, 10.3km/h, 4.0, CO2 배출량 226g/km • E 350 4MATIC 3,498cc, 1,800kg, 지름71.1, 9.9km/h, 4.0, CO2 배출량 246g/km • E 63 AMG 5,461cc, 1,980kg, AMG SPEEDSHIFT 7.3, 10.0km/h, 5.0, CO2 배출량 294g/km • E 350 Coupé 3,498cc, 1,685kg, 지름71.1, 9.9km/h, 4.0, CO2 배출량 236g/km • E 350 Cabriolet 3,498cc, 1,805kg, 지름71.1, 9.4km/h, 4.0, CO2 배출량 246g/km  
※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는 차이가 있습니다.